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개최

- 정부, 희생자 신원 확인, 유가족 지원, 부상자 치료 등에 최선의 노력
- 통합지원센터 및 정기 브리핑 등을 통한 정부 지원 및 수습 사항 상세 안내

□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30일(월)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*를 개최했다.

*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외교부, 경찰청, 소방청, 전라남도, 한국공항공사, 17개 시도 등 참석

□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, 사망자 유가족 지원,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.

○ 우선,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*으로 통합지원센터(센터장: 국토부 제2차관)를 5개반**으로 구성·설치(12.29.)해 피해자 수습·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 지원을 일원화했으며,

* 행안부, 복지부, 경찰청, 소방청, 전남도, 무안군, 공항공사, 항공사 등

** 총괄상황반, 유가족지원반, 사고수습반, 법률·보험지원반, 지역언론대응반

○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(브리퍼: 지방항공청장)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('24.12.29.~'25.1.4.) 중 전국 17개 시·도에 합동 분향소(자치단체별 최소 1개소 이상)를 설치 운영한다.

* 시군구는 자율 설치 운영

- 또한,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.
 - 한편,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,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“국토교통부,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”을 지시했으며,
- “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명신 (044-200-2239)
		담당자	사무관	임지영 (044-200-2240)
담당 부서 <공동>	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유순 (044-205-6330)
		담당자	서기관	정광석 (044-205-6331)
담당 부서 <공동>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조종관 (044-201-425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